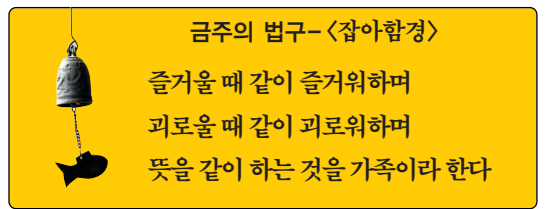


지승도 교수(한국항공대)
인공지능에 자아 인식
생기면 인류위협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9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8호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조계종 '선학원 특별교구화' 재제안

3원장, 정상화위원장 명의로... "중단 협의사항"

법등 스님 "선학원 한뿌리, 중도 잃는 아픔 커"

조계종이 선학원에 특별교구 지정 등의 협안을 다시 제안했다. 총무원장 등의 명의로 선학원에 제안한 협의안은 정상화추진위의 뜻이 아닌 종단적 협의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회장 성문 스님, 호계원장 지원 스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명의로 10월 20일 '전국의 선학원 분원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지난 4월 종단이 제시한 △법등 스님 지위 원상회복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중앙총회의원 2석 배정 △원로의원 1석 배정 △분원장급 임원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등이 다시 제안됐다.

자승 스님 등은 공고문에서 "종단과 선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개인 뜻이 아니라 종단적 협의사항"이라며 "중

단과 선학원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를 최선으로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선학원 이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이사 스님들의 이해관계나 편벽된 사고에 머물지 말고, 종단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확인하려는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10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법등 스님은 종단과 선학원 이사진과의 갈등으로 피해보는 것은 일선 사찰의 스님들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1만2,000km를 다니며 170여 명의 스님을 만났다"면서 "포교 일선에서 애쓰시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 종단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았고,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등 스님은 적지 않은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과 조계종

조계종 제안 선학원 협의안

- 법등 스님 지위 원상회복
-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 중앙총회의원 2석 배정
- 원로의원 1석 배정
- 분원장급 임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은 한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스님은 "선학원 이사진과 뜻을 같이 하려 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분원장 스님들이 종단과 선학원을 한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런 인식을 가진 스님들께는 선학원 정교관 원상회복을 위한 위임장 서명을 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발표되는 공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선학원에 제안한 협의안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종단 차원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법등 스님은 "선학원 특별교구 등을 골자로 한 협의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복식시키고자 총무원장, 총회회장 등의 공동 명의로 해당 협의사항이 재차 공지될 것

이라고 밝혔다

선학원이 주장하고 있는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법등 스님은 "조계종 스님이 사찰을 창건해 종단에 등록하라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9조 3항의 폐해를 이야기하려면 하면 막상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사유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선학원 "중단 입장만 강요말라"

조계종의 제안에 선학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학원 관계자는 "선학원은 조계종이 제안한 5개 항목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조계종은 종단의 입장만 강요하기보다 먼저 선학원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학원은 탈종을 기도한 적이 없으며, 종단으로부터 출종을 당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학원 자체 수계, 교육, 승려증 발급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계종의 규제가 따른 자구책임 뿐"이라며, "조계종은 분원장들에게 현 사태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선목 혜자 스님 등 내빈들이 10월 20일 서울 도안사에서 열린 회향법회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 기념공원 제막식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108산사 순례, 9년 대장정 회향

10월 20일 서울 도안사에서 회향법회 개최

선목 혜자 스님이 이끄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기도회'가 10월 20일 108번째 순례자인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서 108차 순례기도 회향법회를 열면서 9년 동안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2006년 9월 양산 통도사에서 첫 순례

를 시작으로 매달 5천명 가량의 회향이 참여해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왔다. 9년 동안 연인원 약 54만 명이 동참해 지구를 204바퀴나 돌았고 여기에는 1만2천여대의 버스가 동원됐으며, 또 순례자들이 총 3천여 가마의 쌀을 공양했고, 군 장병에게 415만

개의 초코파이를 보시했으며,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회원들이 30억원 어치의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각종 진기록을 세웠다.

이날 회향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한국 불교의 올바른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기도도량 53곳을 순례하는 '선목혜자 스님과 믿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량 순례'에 나선다. 김주일 기자 (관련 특집 16·17면)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

실천승가회 등 불교계 단체 반대 성명 잇달아

동국대 교수도 집필 거부
대불철·청교련 등도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불교계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실천불교전승승가회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종교인 일동은 10월 22일 국회 정문관서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장기적 안목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정책을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나 교과서 검인정체계 도입 6년 만에 또다시 국정화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는 그 어떤 철학과 가치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거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전면 철회해야 하며, 백년

지대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장기적 안목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정년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청소년교화연합회 등 청년 관련 단체들도 19일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주제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 불교계 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역사 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다고 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하나 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강택구·한철호·황인규·윤선태(이상 역사교육과), 서인범·양홍석·노대환·최연식(이상 사학과) 등 역사 관련학과 교수 8명은 10월 16일 '반민주적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인정 교과서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정취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산물이다. 정부와 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대 학사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현재 정부가 시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될 학문적, 교육적 폭거이다. 정

부 여당의 의도대로 국정화가 시행된다면 우리들은 그 집필 및 감수를 비롯한 어떤 과정에도 일절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 이후에도 국정화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현재 동국대 교수들과 함께 집필거부를 선언한 학교는 연세대·고려대 등 총 12곳이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서 처음으로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논란에 대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은 과거의 역사마저도 자기를 입맛에 맞는 것들만 취합하고자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정화 작업은 '창조경제'라는 희망의 깃발을 씌고 달려가는 여러서는 짓밟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포교대상 수상

조계종 포교원, 10월 15일 포교대상 수상자 선정

포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에서 수여되는 조계종 포교대상 올해 대상 수상자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인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15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7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종정상인 대상에는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이,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에는 효명 스님(쌍계사 주지), 일지 스님(인천불교회관 주지), 김기병(포교사단 초대단장), 한복순(범어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력상(포교위원장상)에는 법일 스님(원도 신홍사 주지), 대안 스님(금수암 주지), 백거 스님(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김상인(공무원불



성운 스님



효명 스님

일지 스님

자연합회장), 박경숙(조계사 직지직능전법단장), 홍성란(대한불교조계종 전문포교사), 대한불교조계종 한 국불교대학 대관음사로 6명, 단체 1곳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인 성운 스님은 1978년부터 사찰, 교도소, 군부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했으며, 삼천사 경내 마애불을 국가문화재보물657호 지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종교위원으로 1440여회 법회를 통해 교정교화 불법홍포에 힘썼으며, 논산훈련소5군단, 30사단 등 군부대법당을 건립

하여 군포교에 기여했다.

1994년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해 다양한 복지분야에 사회 복지사업을 활용한 불교포교를 이끌어왔다. 또한 미국 LA에 삼천사 포교원을 개설하여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직능포교와 사회포교를 아우르는 원력을 펼쳐 왔다.

한편,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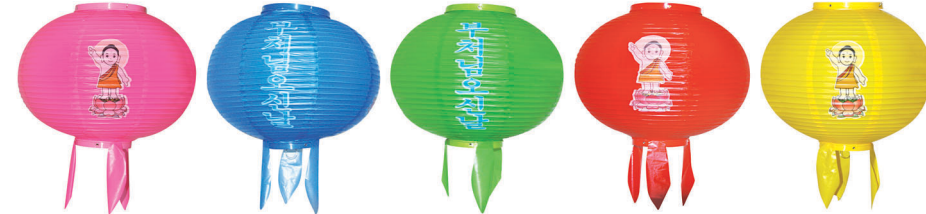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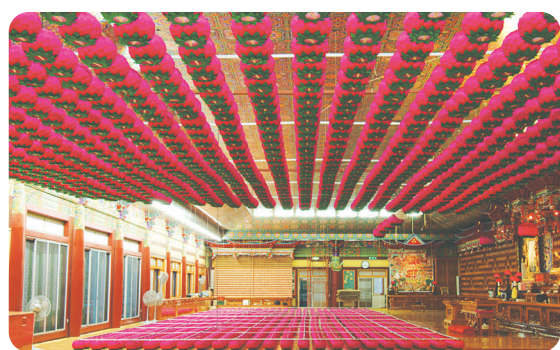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mm)
29호 12절 13매 (257×263mm)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